

ECONOMY

2025년 8월 5일 화요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주

소상공인 매출 2% 증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나 뛰었으며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으며,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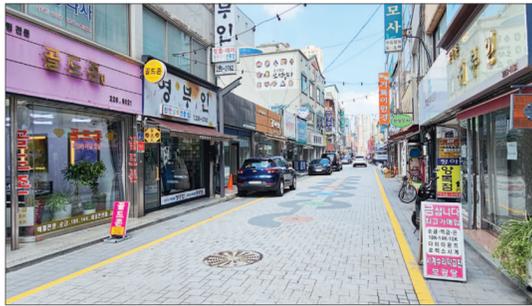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는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치솟는 금값...현명한 '금테크' 전략은

절세·간편 거래엔 KRX·ETF... 막금은 매매차익 유리

실물 부가세·세공비 부담
소액 거래 가능 은행 선호
KRX 소량 거래·세금면제
실물인출 땐 10% 부가세
펀드, ISA 이용하면 절세



고을 관세 정책으로 금 가격이 사상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충장로 귀금속 거리.

고을 관세 정책으로 금 가격이 사상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금온방에서만 사고 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면서 '최대 이익'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국내에서는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방식이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익도 조건도 달라 고민에 빠지기 쉽다.

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 1돈(3.75g)의 시세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43.8% 오른 65만원을 기록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102.5%)를 넘어섰다.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상황 속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실물 금을 사는 직접 투자부터, 온라인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금온방을 통해 골드바,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다. 금의 실물 보유가 가능하고, 가격 상승분에 세금이 붙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와 세공비(1~10%)가 붙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막금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금은 85만~90만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보관·관리 부담도 있다. 더욱이 되팔 때 세공 수준과 무관하게 무게만 따지기 때문에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행(국민·신한·우리 등)을 통해 소액(0.01g 단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도 선호한다.

실물 인출 전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표가격 저점매매 같은 편의기능도 갖췄다. 그러나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가 붙고, 거래 시 약 1% 수수료. 매매차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실질 투자금은 약 98만~99만원 수준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인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단점이다. 한국거래소 금시장(KRX)에서 매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1g 단위 거래 가능. 부가세·양도소득세 면제, 실시간 시세 반영 등이 장점이다.

100만원으로 투자하면 수수료(약 0.2~0.6%)를 제외하고 99만원 내외로 운용 가능하다. 하지만 실물 인출 시에는 10% 부가세가 붙으며, 1kg 단위로만 출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실물 인출이 사실상 어렵다.

항목	실물 금	골드뱅킹	KRX 금 거래	금 ETF
활용도	부가세 10% + 세공비 - 약 85~90만원	수수료 약 1% - 98~99만원	수수료 약 0.2~0.6% - 99만원	수수료 약 0.1~2% - 97~99만원
세금	매입 시 부가세 10%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부과,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부가세·양도세 면제(비과세),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ISA·IRP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는 양도세 22% 부과
환급성	금온방 시세 차이 실물 판매 불만	은행 창구 영업 가능	증권사 앱 이용 실시간 거래 가능	증권사 앱 이용 실시간 거래 가능
편의성	실물 보관 필요, 관리 부담	모바일 앱·자동매매 지원	증권 앱 이용, 실시간 시세 변동	비대면·간편 거래, 초보자도 접근 용이
장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없음, 실물 보유 안전자산까지 활용	간편한 투자와 편의성 제공	간편한 거래, 양도세·부가세 면제 등 혜택	간편거래, ISA·IRP 이용 시 절세 효과
단점	분실·도난 위험, 세공비 손실	높은 수수료, 수익 과세 발생	실물 인출 시 번거로움, 투자자 자격면담성 주의, 실물 인출 불가, 본인의 투자능력 필요	높은 위탁 수수료

0.2~0.6%)를 제외하고 99만원 내외로 운용 가능하다.

하지만 실물 인출 시에는 10% 부가세가 붙으며, 1kg 단위로만 출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실물 인출이 사실상 어렵다.

또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앱 사용에 익숙해야 하고, 시장 상황을 수시로 지켜보는 직접 관리의 부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실물 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 가능, 높은 환급성, 투자 간편성이 강점이다.

일반계좌 외에도 ISA(200만~400만원 비과세), IRP(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어 절세에도 유리하다.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광 기업 등이 포함된 ETF는 기업 이슈에 따라 급락 위험도 있다.

100만원을 투자해 20만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전액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계좌라면 15.4%의 세금이 붙는다.

결국 '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달렸다.

안정성과 실물을 원하면 막금이나 골드바, 절세와 간편함을 원하면 ETF나 KRX를 거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물 인출 여부, 매매차익 과세, 투자 규모 등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투자 루트를 설계하는 것이 금값만큼이나 중요한 시대다. djawoo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N-NEXUS
N넥스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구 & 개발: 통합영상관리,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 패턴인식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원재 단축 및 CCTV 시스템
E S 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아연이 인산염 도금 공정
설계 & 지원: 유·무선망 관제망, 서버네트워크, 영상관제, 보안·지능형관제·영상추적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관리,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공사, 서버실비 설치, 광학 ICT 분야 설치, ITS 설치, 열차통신 시스템, 해외협력사업

TEL 062-719-1080-2

다다캠프
2025 다다캠프 3주년을 맞아 문화·진로탐색 기회 '다다캠프'

광주은행은 굿네이버스 사회적자랑함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정읍에 위치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다문화아동 진로탐색 기회 '다다캠프'

4일간 금융교육·천문학교실 등 체험형 프로그램

광주은행(은행장 고영일)은 굿네이버스 사회적자랑함지원센터(센터장 배준열)와 함께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정읍에 위치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다다캠프'는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의 줄임말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JB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진로탐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캠프는 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봉사단'이 함께 하는 금융 교육을 비롯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의 진로특강, 실내 오리엔티어링 활동, 전

문학 교실,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의 다문화 강연, 진로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역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비아신협, 자산 4000억 달성 기념식

비아신협은 4일 본점에서 자산 4000억 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금옥 비아신협 이사장, 신민술 전무,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 전남본부장이 참석했다.

비아신협은 '신협의 정체성'인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8695만원,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신협중앙회의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에도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복에는 광산구 노인정에 백숙을 닭을, 어버이날에는 식사를 지원해 지역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소외계층에 연탄을 후원하며 따뜻한 겨울을 함께하고 있다.

이금옥 비아신협 이사장은 "30년 동안 비아신협을 믿고 함께해 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자산 4000억원 달성을 계기로, 조합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하 신협 광주전남본부장은 "자산



4000억원 달성을 위해 달려온 비아신협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 금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소흥 기자 photo25@